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가르쳐 주세요

(제 4 회)

■ 鄭 東 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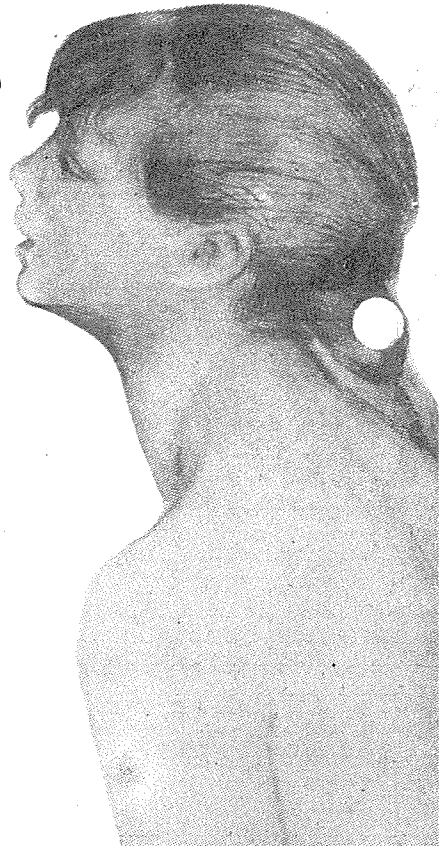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鄭東哲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44



출생의 신비



일단 성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제 구체적인 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물론 정확한 성지식을 어머니가 갖고 있어야 하겠다는 전제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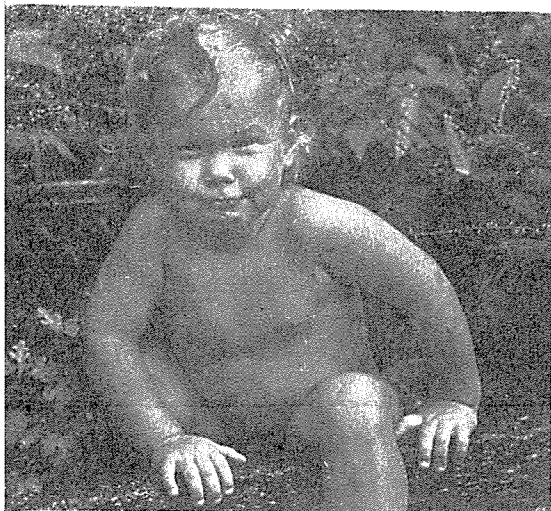
「엄마 난 어디서 왔지?」

대답에 앞서 우선 어머니가 이 점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성교의 결과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 데서가 아니라 그 정확한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이다. 놀랍게도 많은 어머니들이 부부간의 육체관계와 태몽이 임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이런 어머니는 출생의 비밀을 묻는 아이가 어머니 자신의 성생활을 캐어 묻는 것으로 받아 드러져 회피적 표현을 불가피하게 한다. 어머니 스스로가 임신이나 출산의 구체적 현상은 성교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임신과 출산은 성교행위로 등식화(等式化)할 수는 없다. 그 원인을 제공한 점은 분명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그리고 절대적 현상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세포분열을 통한 태아의 성장과 만삭에 따른 출산이란 사실이다. 이 점에 분명하고 자신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적어도 돌발적 질문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에 성교행위가 연상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의 과학적 현상이 떠올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켜 줄 것인가에 고심할 따름이다. 그것은 묻는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다는 점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란 것이다. 물론 호기심에 차있는 어린이는 잉태의 현상을 설명하면 뒤미쳐 「그럼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 배속에 들어갔지?」

라고 물어올것에 염려하여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바꾸도록 유도해 버리거나 일언지하에 그런 질문들을 묵살해 버리는 수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엔 대단히 위험하고 중대한 착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때 아이들이 성기와 성교적 행동들에 관해 그것이 이상한 것이거나 또는 부끄럽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냉철히 이해해보자는 것이다. 겸연쩍고 당황하는 것은 어머니일뿐 아이가 아니다. 어머니가 몇몇하면 아이도 그대로 몇몇할 것이며 어머니가 놀라면 그로부터 아이가 놀라운 것으로 점차 이해되고



또 연상되어갈 뿐이다. 문제는 다시 강조하건데 어머니 자신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어느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잉태와 태아발달에 대해 어느정도 그 지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게된다.

어머니 아랫배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난소에서 매달 난자가 하나씩 나와 그것이 나팔관을 통해 자궁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아빠의 정자를 그곳 나팔관에서 만나 수정이 되면 자궁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곧 임신이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배란한지 대개 12일 후 생리하는 현상을 통해 질밖으로 배설된다. 난자는 사춘기에 접어들기전 초경이 있은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만 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 남자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정자와는 그 생산과정이 다르다. 수억개의 정자가 고환에서 수시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덜 영근 예비난자

를 한 개의 난소속에 20만개쯤 갖고 태어나 그것이 하나씩 성숙하여 배란하는 것이 여자의 상황이다.

수정되어 자궁에 자리를 잡게되면 이는 끊임없이 분열하여 수억만개의 세포로 발전하여 태아를 거쳐 신생아가 된다. 배란된 날로부터 280일이 지나 출생하는 것이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속에서 핏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며, 양수속에 보호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매우 안락한 조건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속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것을 자녀교육에 강조할 필요가 생긴다. 그것은 반드시 말로써 일일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평상시의 부모 자신들의 생활태도와 직결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태어난다는 것.

둘째, 수정의 현상이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데는 참으로 0의 확률을 갖는 것이므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당당한 것인가를 일깨워준다는 것.

셋째, 만 9개월동안 어머니의 배속에서 어머니의 힘을 입어 성장하므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특별히 느껴 알 수 있겠다는 점.

넷째, 거기엔 당연히 아버지의 힘

찬 생활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

다섯째, 생명의 시작은 수정으로부터이며 출생의 진통이 값지다는 것.

이상 몇가지 의미를 성철학(性哲學)으로 하여 자녀를 키워가면 장차 훌륭한 성적 개체로서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준비가 훌륭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입장을 전제로 자녀를 대하면 질문에 당황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물어오는 연령에 알맞게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차스럽게 엄마소와 아빠소를 비교하여 스스로 아버지가 동물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며 그만큼 솔직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한가지 일에 반복해서 물어온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럴때마다 따라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번번히 진지하게 필요한 정도의 대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되묻는 아이들이 마치 성에 눈을 뜨고있는 증거이거나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로 그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전연 준비되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감히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궁금할 때마다 되묻고 또 물어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며 건강한 증거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태도가 굳혀지면 다음에 함께 생각할 어린이의 질문

■ 생활과학



■ 무좀의 치료

무좀은 백선균(白癬菌)이라는 곰팡이가 피부 각질에 번식하여 생기는 병으로 일반세균과 달라서 살균제에 대해 저항력이 강하다.

무좀은 짓물러 다른 화농균이 감염되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2차 감염부터 먼저 치료한 후 무좀을 치료하여야지 무좀약만 바르고 화농증은 그냥 두면 입파선염까지 생겨 크게 고생하게 된다. 무좀을 완치하는 비결은 무좀이 나타나지 않는 겨울이나 이른 봄에 발을 잘 씻고 무좀약을 바르면 된다.

심한 무좀은 「그리세오 홀빈」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복용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있으며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늘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벼운 단계에서 끈기있게 무좀약을 발라 치료하도록 한다.

에 그 대답이 어려워질 것이 없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계속>